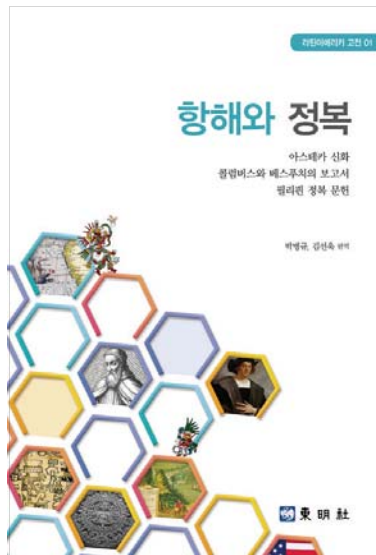


Books

신간소개



항해와 정복 - 아스테카 신화, 콜럼버스와 베스푸치의 보고서, 필리핀 정복 문헌

박병규·김선욱 편역

출판사: 동명사

출판일: 2017-12-30

ISBN(13): 9788941181811

268쪽 | 225*152mm

소란스러운 시대, 기존의 세상 지도는 갈수록 쓸모가 없어지고 아직은 새 지도도 만들지 못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남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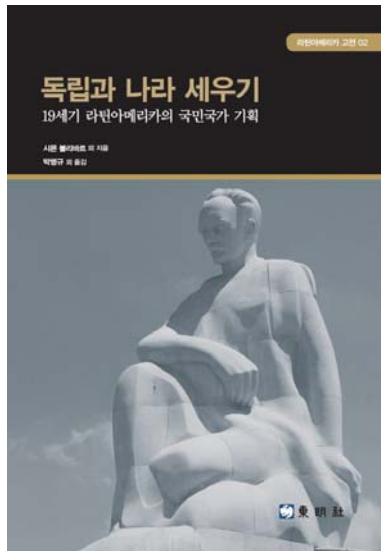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글 모음집이다.

제1부에서는 아스테카의 태양신화 5종류를 비롯하여 우이칠로포츠틀리의 탄생신화를 번역하고 해제를 달았다.

제2부에서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에 앞서 스페인 왕실과 체결한 ‘산타페 협정문’, ‘익명의 동양군주에게 보내는 친서’, ‘신대륙 도착을 알리는 콜럼버스의 편지’, ‘3차 항해에서 가톨릭 양왕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베스푸치의 문헌 『신세계』와 ‘네 차례 항해에서 발견한 여러 섬에 대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편지’를 수록했다.

제4부는 동양으로 진출하려던 16세기 스페인의 꿈과 열망을 읽을 수 있도록 ‘펠리페 2세가 1560년 중국 황제에게 보낸 서한’을 비롯하여 레가스피를 비롯한 여러 정복자들이 필리핀의 곳곳을 정복한 기록을 담았다.



독립과 나라 세우기 -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국민국가 기획

박병규 편역

출판사: 동명사

출판일: 2017-05-30

ISBN(13): 978894118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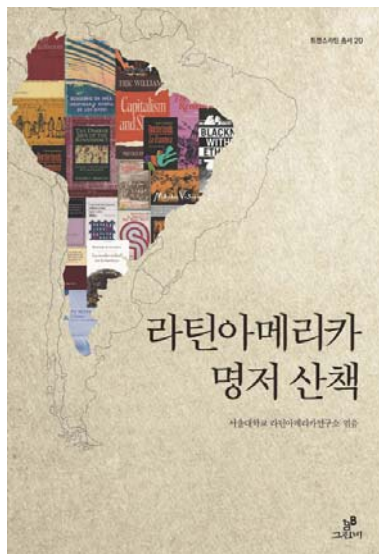
300쪽 | 225*152mm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19세기 초에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성취했다. 그러나 신생국 탄생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갖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군주제와 공화제, 연방제와 중앙집권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설정, 식민 잔재의 청산 문제에 시달렸고, 대외적으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대응해야 했다. 세계 여느 신생국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나라 세우기(state building)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도, 순탄하지도 못했다. 역사는 ‘혁명’이라는 이름의 정변으로 얼룩지고, ‘질서’라는 이름의 독재로 귀결되기 일쑤였다. 자유파와 보수파는 이념이 아니라 이권을 놓고 대립하거나 야합했다. 이렇게 어수선한 현실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부단히 이상을 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국의 야욕을 경계했다. 이 책은 이런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나라 세우기 열망과 기획을 담은 선집이다.

수록된 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조국을 위한 삶은 기쁨이요, 조국을 위한 죽음은 영광이다 /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
2. 콜롬비아 대륙, 일명 이스파노아메리카 대륙의 민중에게 고함 /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
3. 돌로레스 민중에게 고함 / 미겔 이달고(Miguel Hidalgo)
4. 카르타헤나 선언 /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5. 자메이카에서 쓴 편지 /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6. 아이티 독립선언문
7. 아이티 제국 헌법
8. 문명과 야만 /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Domingo Faustino Sarmiento)
9. 아메리카 연중을 위한 스페인어 문법 서문 / 안드레스 베요(Andres Bello)
10. 아메리카 둘러보기 / 후안 몬탈보(Juan Montalvo)
11. 통치는 식민이다 /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Juan Bautista Alberdi)
12. 아메리카의 날 / 에우헤니오 마리아 데 오스토스(Eugenio Maria de Hostos)
13. 출로 / 에우헤니오 마리아 데 오스토스(Eugenio Maria de Hostos)
14. 원주민 / 후안 몬탈보(Juan Montalvo)
15. 정복 / 후스토 시에라(Justo Sierra)
16. 고무 채취자 / 에우클리지스 다 쿠냐(Euclides da Cunha)
17. 우리 아메리카 / 호세 마르티(Jose Marti)
18. 칼리반의 승리 / 루벤 다리오(Ruben Dario)
19. 아리엘 / 호세 엔리케 로도(Jose Enrique Rodo)
20. 병든 대륙 / 세사르 수메타(Cesar Zumeta)
21. 이스파노아메리카 여성작가의 임무 / 솔레다드 아코스타 데 삼페르(Soledad Acosta de Samper)
22. 여성 노동자와 여성 / 클로린다 마토 데 투르네르(Clorinda Matto de Turner)
23. 해묵은 문제 / 알폰시나 스토르니(Alfonsina Storni)
24. 여성이 아메리카 정신 형성에 미친 영향 / 테레사 데 라 파라(Teresa de la Parra)



라틴아메리카 명저 산책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출판사: 그린비

출판일: 2017-05-30

ISBN(13): 9788976822833

320쪽 | 220*150mm

‘트랜스라틴 총서’를 통해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를 선도해 온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이번에는 라틴아메리카를 다룬 여러 분야의 ‘명저’들을 소개하는 책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연구소가 2008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년부터 발간해 온 웹진 <트랜스라틴>(<http://translatin.snu.ac.kr>)에 ‘명저 산책’이라는 코너로 연재된 글들을 모은 『라틴아메리카 명저 산책』이 바로 그것. 역사학, 인류학, 정치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이 각자 자신만의 ‘명저’를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는 이 책의 취지가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라틴아메리카 고전, 특정 연구 분야의 기본적인 입문서, 서구의 지배적 담론에 비판적인 관점을 담은 명저 등을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의 시각으로 쉽게 풀이해 소개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명저 산책』은 실비아 리베라 쿠시캉키, 글로리아 안살두아 등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학자들의 연구에 담긴 개략적인 내용을 가늠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로베르 리카르, 후이 마우루 마리니 등의 고전적 저작을 최근의 후속 연구와 함께 조망하게 한다.

이 책에 실린 스무 편의 글은 다양한 학제만큼이나 다채로운 국가들과 시대를 다루고 있다. 각 분야의 학자들은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을 저마다의 개성적인 방법으로 ‘산책’하며, 이 여정에서 독자들은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키워드들이 공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중해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전3권)

페르낭 브로델(저자)

주경철·조준희(역자)

출판사: 까치

출판일: 2017-11-30

ISBN(13): 9788972916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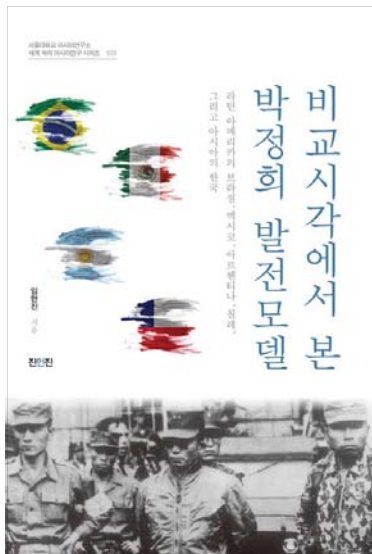
572쪽 | 225*155mm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16세기 지중해는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펠리페 2세 통치기의 지중해 세계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교역이 일어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펼쳐지던 놀라운 세계였다. 역사학계의 ‘교황’이라고 부르는 페르낭 브로델은 각국의 문서보관소에 있는 당시의 문서를 살살이 파헤침으로써 16세기의 지중해 세계를 엄밀하게 재구성하여 현대의 독자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대한 스케일, 엄청난 자료, 참신한 해석의 틀 등이 압도하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분은 그 자체로 총체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시간적으로는 펠리페 2세 시대, 곧 16세기 후반기 5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연구 대상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레반트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지중해의 바다와 육지 세계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페르낭 브로델이 1923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49년에 출간한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분은 그 자체로 총체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시간적으로는 스페인의 군주 펠리페 2세 시대, 곧 16세기 후반기 5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연구 대상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레반트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지중해의 바다와 육지 세계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비교시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임현진(저자)

출판사: 진인진

출판일: 2017-12-28

ISBN(13): 9788963473604

260쪽 | 225*153mm

이미지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이 책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으로 일컬는 박정희 집권기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한 지배 과정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라틴아메리카의 4개 국가의 사례와 더불어 비교발전론적인 분석을 제시한 학술서이다.

저자는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의 지배양식과 발전경험을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비교를 통해 그 시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비교발전론적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그 비교의 대상으로는 비슷한 시대에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를 설정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박정희 지배시대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배이데올로기, 종속적 발전 과정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 과정, 국가기구 자율성의 강화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2부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의 사례를 각각 1개의 장을 할애하여, 각국의 군사정권의 특징과 함께 국가기구가 사회, 경제, 노동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간략하지만 짜임새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세계 경제에서의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개발을 시도하게 되는데, 국가별로 국가 권력의 탄생 배경이나 사회적 지배력, 저항세력과의 역학관계에 의해 고유한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